

트럼프 “번영하는 베트남, 北에 본보기”

국가주석·총리와 회담 공식 일정 돌입... ‘핵포기시 펼쳐질 미래’ 메시지 발신 차원 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베트남 최고위 인사들과의 양자 회담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쯩 국가주석과 만나 확대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쉰 록 총리와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담 자리에서는 무역 관련 서명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 국가주석과의 확대 양자 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로 규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담판에 앞서 ‘적대국-동반자 관계’로 대전환을 이룬 미-베트남 관계를 과시, 북한으로 하여금 번영하는 베트남의 길을 따르기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특별한 무언이 있다. 나는 어젯밤에 (전용 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공사 중인 모든 건물을 봤고 베트남이 얼마나 번영하는지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오늘 밤 ‘매우 큰 만찬 (a very big dinner)’ 및 북한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나와 김 위원장) 모두 베트남에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훌륭한 생각을 하면 (북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본보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 앞에 양 정상 모습 담은 그림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미국을 대신해 (회담을) 주최해주고 바라건대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 핵 담판 직전 정상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지도자들을 예방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펼쳐질 잠재적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석궁을 방문하기 전에 올린 트위터 글에서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력이 굉장하다(awesome)”며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어떤 곳에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노이서도 ‘오누이 케미’



김여정, 오빠 김정은 비서실장·의전장·수행비서 도맡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곁에는 항상 여동생이자 국경운영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있다. 북측 정상회담 대표단의 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과정에서 또 한번 ‘오누이 케미’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전용 열차의 평양역 출발 때부터 도착 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손과 발이 돼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공식 직함은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자 의전장, 수행비서 역할까지 도맡으며 일인다역을 수행 중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3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행 전용 열차를 타기 위해 리무진을 타고 평양역에 들어서자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김 위원장의 하차 후 차 안을 점검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잡혔다. 의전비서관이자 경호원 역할을 동시에 한 셈이다. /연합뉴스

그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의 동당역에 도착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 ‘매의 눈’이 돼 데크카펫과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의 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과정에서 또 한번 ‘오누이 케미’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동행하는 김 제1부부장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이미 작년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김 위원장을 밀착하며 공동선언 서명식 때 선언 문건을 펼치고 사인펜을 챙기는 등 의전을 타기 위해 리무진을 타고 평양역에 들어서자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김 위원장의 하차 후 차 안을 점검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잡혔다. 의전비서관이자 경호원 역할을 동시에 한 셈이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 수행단, 하롱베이·하이퐁 산단 시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행단의 일부 간부가 27일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산업단지가 있는 하이퐁 시찰에 나섰다.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10시)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출발해 하롱베이를 향했다.

이들은 하롱베이가 속한 팜닌성의 응우옌 반 독 당서기와 응우옌 득 룡 인민위원장의 환영 속에 유람선에 올라 하롱베이를 둘러본 뒤 선상에서 오찬을 즐겼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독 당서기는 북측 시찰단에 1964년 김일성 주석의 하롱베이 방문을 화제로 올리며 팜닌성의 잠재력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하롱베이를 방문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오후에는 하노이에서 110km쯤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을 시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이퐁시가 마련한 브리핑을 들은 뒤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Vinfast)’ 공장과 현대전차 업체인 ‘빈스마트’, 농장인 ‘빈에코’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하이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의 선두 지역 가운데 하나로,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쇄신)’와 관련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일찌감치 북측 관계자들의 시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 | | |
|------------|----|--------------------------------------------------------------------------------------------------------------------------------------|
| 28일 | 오전 | 북미간 단독·확대 정상회담 |
| | 오찬 | |
| | 오후 | 회담 결과물 담은 하노이 선언 서명, 단독·공동 기자회견 |
| | | 저녁 회담 종료 후 출국 |
| 3월 1일 (예상) | | 3월 1~2일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호찌민 전 주석 묘 헌화 및 생전 거소 방문, 응우옌 푸 쯩 베트남 국가주석, 응우옌 쉰 록 총리와 회담,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와 베트남 첫 완성차 업체 공장이 있는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 시찰 가능성 |
| 2일 | | 공식 일정 종료 평양으로 귀환 |

중국, 종전선언 참여 희망 의사 내비쳐

27일 시작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바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조속히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한반도 ‘쌍궤병진’(雙軌並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방안이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할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과정에서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지는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 자문

엔피엘/급매물등 모든부동산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안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안바이오 배세생약건강 · 검색

010-3598-7080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령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 수 강 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클라우드에셋 강의실
-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령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령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